북스

Books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삶의 무늬'

바다의 기별

김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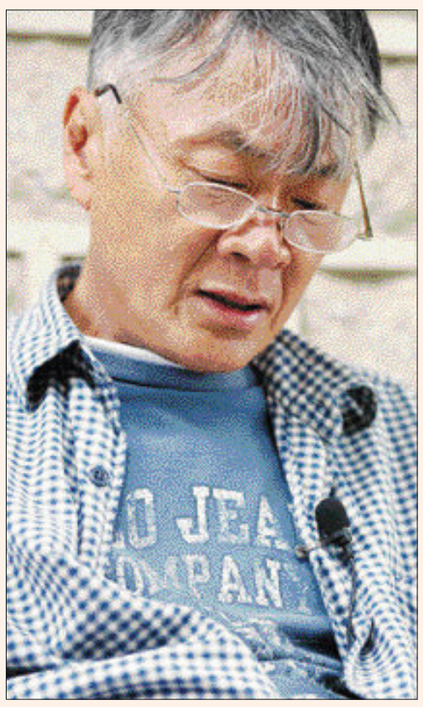
'칼의 노래' 김훈은 여전히 원고지에 연필을 고집하는 작가다. 또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자신의 자전거인 '풍륜'(風輪)을 타는 것을 즐긴다. 그는 자신에 대해 '기계문명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구자'라고 말하지만 그의 아날로그적 화법은 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진다.

소설가 김훈이 지난 세월을 연필로 꾹꾹 눌러 원고지에 담아 산문집 '바다의 기별'로 펴냈다.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썼던 산문 11편과 2건의 강의 내용을 고쳐 담았다.

4년 만에 펴낸 이번 산문집에서 그는 아버지와 딸 등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기자시절 겪었던 취재 경험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등 무뚝뚝함 속에 숨겨뒀던 속마음을 풀어냈다.

먼저 그는 '무사한 나날들'을 통해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에도 감동하고 눈물을 쏟아냈던 자신의 여린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냈다. 첫 월급을 탔다며 딸이 새로 산 휴대폰과 용돈 15만원을 내밀었을 때를 떠올리며 감격한다. 그리고 젖먹이였던 딸에게서 났던 아이 냄새를 그리워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 어린 딸이 어느새 여자로 자란 무사한 날들에 대해 감사한다.

'회상'에서는 "나는 올해 예순살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애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맞먹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똑같은 세월을 살아낸 것이죠"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피난지에서 미군이 던진 '허쉬 쪼꼬렛'을 쫓아다녔던 어린 시절과 66학번 대학생 시절 작가의 개인사, 그리고 소설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 그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밀도 있게 풀어낸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지하 시인이 석방되던 1975년 2월 어느 날의 기자시절 취재 뒷얘기도 눈길을 끈다. 당시 초년병 기자였던 김훈을 사로잡은 것은 김지하 시인이 아니라 한파가 몰아치는 교도소 앞에서 외손자를 등에 업고 사위의 석방을 기다리던 소설가 박경리였다.

"어쩌자고 생후 10개월 미만의 어린 것을 업고 영하 12도의 강추위 속에 바람 부는 교도소 앞 광장으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인네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기로 했다. 시대도, 긴급조치도, 무슨무슨 혐의도, 김지하도,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여인네의 등에 매달린 아이가 발이 시리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만을 했다."(87~89쪽)

이밖에 '광야를 달리는 말'에서는 선친인 소설가 고 김광주씨의 관을 묻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고향과 기억'에서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순한 서울말을 좋아했다"고 고백한다.

"글을 쓸 때 내 마음속에는 국악의 장단이 일어선다. 일어선 장단이 흘러가면서 나는 한 글자씩 원고지 칸을 메울 수 있다. 이 리듬감이 없이는 나는 글을 쓸 신명이 나지 않는다…. 나는 글을 몸으로 쓴다.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없으면 단 한 줄도 쓰지 못한다. 연필을 쥔 손아귀와 손목과 어깨에 사유의 힘이 작동되어야 글을 쓸 수 있다."(58~59쪽)

일기장 같은 그의 산문집을 읽다 보면 작가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저자가 썼던 책의 서문과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며 썼던 수상 소감도 부록으로 함께 실렸다.

〈생각의 나무·9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금 필요한 것은 돈·권력 아닌 소통과 연대

대중지성의 시대

천정환 지음

올해 우리 사회는 정치와 경제의 양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촛불시위'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고, 현재 진행형인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폐해 극복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다시 던져 줬다.

물론 그 중심에는 대중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 시민은 그동안 지식인들이 '수동적 우매함'으로 인식해온 '대중'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비이성적 이지도 무지몽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 토론방으로 빚어낸 지식의 집단화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움직여 민주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서 황우석 박사의 '사기'를 파헤친 것도 인터넷 사이트 '브릭'의 젊은 과학도들이었다.

이 책 '대중지성의 시대'는 앎을 공유하는 대중, 이른바 '대중지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다.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로 근현대 문화 읽기에 천착해온 저자 천정환은 지식인이 대중을 자신들과 분리하기 위해 고안한 '대중=무지'라는 등식이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지식의 공유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게 대중지성은 '집합적 이성'이며, 연대와 소통 같은 흔히 써오던 말의 새로운 버전이다. 네트워크의 소통·협력을 통해 집합적 지성이 창출된다는 얘기다.

책은 1부에서 현대 지식문화의 구도를 말하고 그것이 야기하는 모순을 들어 집합지성인 대중지성의 의의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앎의 주체성이 어떻게 마련되어 왔으며, 그것이 전체적인 앎의 문화 속에서 어떤 힘과 위치를 점했는지 살폈다. 역사를 움직여온 동력이었던 민중의 앎에 대한 열정에 주목한 것이다. 때문에 책은 '지식의 문화론'이나 '문화로서의 지식론'이기도 한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지성사'를 시도했다.

저자에게는 3·1운동의 민중도 촛불 시민도 스스로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결집하여 억압을 타파하고 집단의 이익을 옹호한 지성의 주체다. 이런 점에서 촛불 시민은 동학혁명, 4·19혁명, 광주항쟁, 6·10 항쟁의 민중과 매우 비슷한 존재다. 모두 자신의 역사단계 걸맞은 지적 능력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한다. 때문에 저자는 "지금 요청되는 지식은 돈과 권력이 아닌 소통과 연대에서 나온다"고 천명한다.

미증유의 경제공황이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2008년 겨울. 위기의 실체를 분석·전망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등장해 네티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중은 위기 극복을 위해 또 어떻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것인가. 〈푸른 역사·1만6천500원〉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지구촌 지금 어떤 일이

'르몽드 세계사'

국제문제 전문지인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기획한 '르몽드 세계사'는 세계의 주요 현안을 살펴 해결해야 할 지구적 이슈와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이냐시오 레모네, 도미니크 비달 등 국제문제 전문기자들과 알랭 모리스를 비롯한 인류학자, 경제학자, 지리학자, 국제정치학자 76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기아와 불평등, 지구 온난화, 국제 범죄, 민족 분쟁, 신자유주의의 본질 등 104가지 주제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소개했다.

중동의 석유가 어디서 어디로 팔려가는지, 원자로를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 등 지구촌의 주요 화제를 총 250점에 이르는 입체적인 지도와 통계, 도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머니스트·2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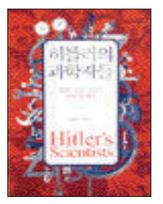
새책

▲로마제국 최후의 100년=서로마제국의 멸망 전 100년을 되돌아보며 로마가 무너진 원인을 분석했다. 런던대 킹스칼리지 역사학 교수인 피터 히더가 3세기부터 5세기까지 로마제국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훈족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 서로마를 멸망에 이르게 했는지 설명했다. 〈뿌리와 이파리·3만4천원〉

▲위대한 연설=안티폰부터 데이나르코스까지 고대 아테네 10대 연설가들의 삶과 사상, 활동, 이념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서구 철학의 근간을 형성했는지를 살폈다. 서양고전문헌학자인 김헌이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을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던 고대 아테네 사회의 모습을 담았다. 〈인물과 사상사·1만5천원〉

▲용인=중국역사를 통해 살펴본 인재 활용의 비법. 중국의 용인 철학과 역사를 다룬 '용인통람'(用人通鑒)에서 발굴한 내용을 주제별로 재구성했다. 역대 제왕들은 시호와 본명을 함께 소개했으며 사진과 도판 200여 컷을 수록해 알기쉽게 설명했다. 〈랜덤하우스코리아·2만8천원〉

▲내 속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진도출신 화가 김양수가 안성 동막골 적염산방에서 보낸 6년 세월을 짧은 글과 서정적인 그림에 담아낸 시화집. 어떻게 자연과 하나가 됐는지, 집착을 버리고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등 53점의 그림과 105편의 글 속에 담겨있다. 〈바움·1만5천원〉



▲히틀러의 과학자들=히틀러 치하를 살았던 근대 과학자들과 그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과학기술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플랑크, 보어, 하이젠베르크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통해 20세기 초 독일 과학의 수준을 보여준다. 또 독일 과학이 어떻게 번성했고 쇠락했는지도 살핀다. 〈크리에디트·2만9천원〉

▲세계의 모든 신화=130가지 질문과 답으로 읽는 전 세계 신화 하이라이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심지어 남태평양 작은 섬의 신화까지 소개했다. 각 문명권의 신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뒤섞이는 과정도 보여준다. 〈푸른숲·2만3천원〉

▲치유하는 글쓰기=한겨레문화센터에서 '치유하는 글쓰기' 강사로 3년간 활동해 온 박미라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면서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설명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난 참가자들이 글을 통해 자기치유를 하는 과정이 소개됐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낙천주의자의 딸=O 헨리 문학상, 전미도서상, 전미평론가협회상 등을 수상한 유도라 웰티의 작품. 저자의 자전적 소설로 아버지의 죽음을 접한 뒤 사랑과 죽음, 관계 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토파즈·1만1천원〉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은어낚시통신' '제비를 기르다'의 작가 윤대녕이 1994년 쓴 첫 장편소설을 재출간했다. 사회와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기억, 시원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주인공의 삶을 밀도있게 그린 작품이다. 〈문학동네·1만원〉

금탑 부동산 컨설팅
공인 중개사 사무소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한전앞)
H·P)016-623-7512 / T)365-6009
목포 북항지구 상가 빌딩 매매
• 목포 북항지구. 광주에서 자동차 50분거리. 2만세대 최중심 상권, 유명브랜드 다수입점. 공실률0. 현성업중. 대1,095㎡(구 331평). 건4,770㎡(구1,445평) 융.보증금 18억원 매가 35억원(실인수대금 약17억원) 대형마트 직접운영하실 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수입 원하시는 분 적합.

B1	기계실, 대피소	3F	학원, 태권도장
1F	마트, 제과점 외	4F	주차장
2F	병원, 식당 외	5F	주차장

금호동 대지 매매
• 사통팔달의 대로변 요지. 대443.6㎡(구 134.2평) 상가주택. 인테리어·건축자재상, 각종판매점, 원룸부지 적합. 매매가 4억4천만원
대형 가든 식당 임대
• 담양군 소재. 대11,000㎡(구 약3,300평) 건 794㎡ 방갈로, 노래방, 연회장, 수영장, 족구장, 배구장 등 시설완비. 보3천만 월120만 시권있음
신창지구 대지 매매
•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변 대지 216.2㎡(구 65.4평) 상가주택, 각종식당, 판매장 적합 매 2억4천만원(응 1억 5천만원가능)
수완 신도시 아파트 매매 분양권 전세
담당공인중개사 H·P)010-7569-9933
지회 금탑부동산 컨설팅은 지역최대 상가전문 부동산 컨설팅업체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업종별로 최선을 다해 핵임 중개해 드립니다.

大勝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함 수완지구 건축상담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수완지구 단일평형 170세대 정문앞 이주자택지 330㎡ 3.3㎡당 450만원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녹지 답 1,762㎡ 4,231㎡ ㎡당 70만(분할가)
▶광산구 신촌동 광송간대로변 지하철역 앞 상업지역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광산구 유계동 답4,300㎡ ㎡당 41,000원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상가매매
▶운남동 주공9단지앞 PC방 183㎡(시비 있음) 매매가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입대중(평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입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입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물건
▶장성 백양사입구 식당 및 호텔대지2,645㎡ 건958㎡ 매17억
▶보성율포해수욕장 민박집 및 최 고의 전원주택 바닷가 전망,경관 최고의 자리.. 대 882㎡ 건172㎡ 매가 3억2천
▶곡성 곡성읍 구원리 관리지역 9,917㎡ 매가 5억4천만 공장, 창고, 기타용도적합(큰도로접 주변시세 이하)
▶담양 봉산면 연동리 전1,576㎡ 농림지역,차량진입가능,주말농장등, 소액투자적합, 매가3천6백만.
토지매매
▶ 담양 대덕면 갈전리 대(전포함) 5,573㎡ 관리지역 차량진입가. 가든,절터,전원주택 적합 매가 1억 8천만
▶ 담양 수북면 대침리 창고부지10,925㎡ 2차선도로접 매가 8억3천만
▶전남 무안읍 성남리 주거지역 4차선접 1,474㎡ 매가 3억2천만
▶담양 금성 대곡리잡종지5,057㎡ 2차선도로접,매가3억1천만
▶담양 고서 분향리 전2,710㎡ 2차선도로접,건축허가 가(그린벨트) 광주탭 부근 매가4억5천만
토지매매
▶전남 회순 춘양면 용두리 (대,전,임)76,003㎡ 매11억5천만 관리지역, 전원주택지동 적합.
▶장성군 삼서면 심계리 (전,임) 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7,526㎡전망좋음,공장등가.매가4억5천만
▶담양 금성면 대곡리 2차선접 관리지역 대 3,305㎡ 매가 2억4천만 (분할 매매가)
▶담양 금성면 대성리 관리,농림임 39,669㎡ 매가 1억8천만
▶나주 문평면 대도리 대,임 3,758㎡ 주택 1동 매가 1억8천만 전망좋음
▶회순읍,삼천리 답 4,245㎡ 2차선도로접, 매가4억8천만
▶담양 대덕면 입석리 관리,농림임 55,537㎡ 매가 5억
▶전남 회순군 도암면 운월리 900 골프장 부근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대,전 6,529㎡ 전원주택 1동(복층형) 147㎡ 조경수 포함 전망좋음(사찰,가든,찻집,공장 등 적합)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답5,692㎡ 관리지역 현 밭으로 이용중 매가 1억2천500만
상가등
▶남구 월산동 지하1층 지상3층 대514㎡ 건866㎡ 매가 8억7천만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부근 4차선접 대181㎡ 건326㎡ 매가 2억5천만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용도에맞춰 최선을 다해 구해드립니다.
♣ 토지 투자물건 다량 보유!! ♣ 24시간 전화상담및 물건 접수!!

현대카드 PSC 모집
현대카드가 프리미엄 컨설턴트(PSC)를 모집합니다.
PSC 활동영역
Premium 카드 the Purple, the Red
법인카드 : Value Chip(중견기업 및 전문직)
현대카드 PSC(Premium Sales Consultant)란?
VIP시장에서 현대카드의 Premium 카드 및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금융 전문가
선발대상 : 컨설턴트 OO명
선발지역 : 광주
우대요건 : 금융 Sales 경력 / 신입 무관
선발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교육수료
특 전 : 6개월간 정착지원금 80만원 지원 + 실적 Incentive
교육수료 축하금 지급 - 교육 수료 시 50만원 지원
접수기간 : 2008년 11월 8일 ~ 2008년 12월 7일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e-mail 접수(chaewon.ko@hyundaicard.com)
면접일정 : 서류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문의전화 : 062-380-5900
e-mail : chaewon.ko@hyundaicard.com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2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 11층 현대카드 Premium sales center(상무지구 이마트 옆)